■ 민족문화연구 제87호(2020.05.31),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pp.257-284.
http://doi.org/10.17948/kcs.2020..87.257

임화의 통속소설론과 문학사론의 관계*
—저널리즘 인식을 중심으로—

배상미(裵相美)**

목 차

1. 들어가며
2. 1920년대 후반기 대중화 논쟁 당시의 쟁점의 재해석
: 검열과 지면
3. 1930년대 후반기 통속소설 담론의 성장
: 부르주아 문학의 재발견과 저널리즘의 성격 규명
4. 임화의 문학사론과 통속소설론의 관계
5. 결론

국문초록

이 논문은 임화의 '통속소설'에 대한 견해가 시대적 맥락과 문단의 분위기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그의 1929년과 1938년에 각각 발표된 평론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것이 임화 문학사론의 이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밝혔다. 임화는 1929년과 1930년 사이에 발표한 프롤레타리아 문학 대중화에 관한 논의를 전개하면서, 프롤레타리아 소설을 대중들에게 더 많이 보급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중들의 기호에 맞는 작품을 창작하고 검열을 피해 대중적인 미디어에 게재할 수 있을 정도로 정치적 급진성을 약화시켜야한다는 김기진의 주장을 비판했다. 그러나 임화는 1938년에 통속소설이

* 이 논문은 2016년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해외한국학 중핵대학 육성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AKS-2016-OLU-2250003).
** 튀빙겐대 한국학연구소 방문연구원.

소설이 게재되는 미디어를 분석하면서 김기진이 대중화론을 주장하면서 사용한 방법론을 차용한다. 임화의 통속소설에 관한 논의는 임화의 문학사론에서 조선에서 저널리즘이 차지하는 다층적인 위치를 보충적으로 설명하는 역할을 한다. 이것은 임화의 문학사론에서는 전면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식민지 조선의 문학사에서 자본주의와 식민주의라는 당대의 물질적이자 역사적 조건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오늘날에도 식민지 조선의 문학사 서술에서 고려해야할 가치가 있다.

주제어: 임화, 통속소설, 저널리즘, 문학사, 대중화, 김기진, 자본주의, 식민주의.

1. 들어가며

이 논문은 임화가 '통속소설'의 가치를 시대적 현실과 문단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인식하는지 1929년과 1938년에 '통속소설'에 대해 평론들을 분석하여 밝히고자 한다. 나아가, 임화의 통속소설 논의가 임화의 문학사 논의의 모순적인 지점을 어떻게 설명해주고 있는지 밝히겠다.

'통속소설'이라는 용어는 식민지시기부터 본격적으로 사용되었고, '대중', '공공', '상업성'이라는 근대적 개념의 생성과 궤를 같이한다. '통속'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한 1910년대 당시에 이 단어는 여러 사람에게 통용되는 공통적인 것, 혹은 저속한 것이라는 양가적인 의미가 있었다.[1] 그러나 1920년대부터 문인들의 평론 등지에서 등장하던 용어인 '통속소설'의 '통속'은 조금 달랐다. 이 '통속소설'이란 문단에서 수용할만한, 문학적 가치를 인정할만한 소설이 아니라 대중들의 기호에 '영합하는' 소설을 지칭하기 위한 편의적인 용어였다. '통속'은 대중들에게 인기를 얻은 특정 문학작품을 경멸하기 위한 목적에서 사용되었고, 이 단어가 지칭하는 구체적인 문학적 특성은 없다고 보아도 무방하다.[2]

---

1) 강용훈, 「'통속' 개념의 변천 양상에 대한 역사적 고찰」, 『대동문화연구』 제85호,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소, 2014, 14-21면.

2) 이주라는 대중들이 많이 읽고 호응을 보냈던 소설을 '대중소설'이라고 명명하고, '통속소설' 역시 이 '대중소설'의 범주 안에서 설명한다. 이주라 역시 식민지시기 지식인들과 문인들은 '통속'의 성격이 무엇인지 설명하지 않고, '소설이 아닌 소설', 혹은 '통속적인 소설'과 같이 "부정명제나 동어반복"으로 '통속소설'에 관한 논의를 전개하였다고 평가한다. 이주라, 『식민지 근대의 시작과 대중

1920년대부터 문단에서 통용되던 '통속소설'이라는 용어는, 1920년대 후반을 거쳐, 일본의 제국주의 전쟁이 심화되어가던 1930년대 중후반기에 이르면 그 용어의 용례에 약간의 변화가 생긴다. 1928년에 김기진은 『조선일보』에 9회에 걸쳐 연재한 「문예시대관 단편」에서 '통속소설'을 작가 의식과 정치적 목적성을 가진 문학이 대중들에게 보다 가깝게 다가가기 위해 참고해야할 문학적 양식으로 제시한다. 그는 통속소설의 소재, 정서, 사상, 문장 등을 언급하면서, 식민지 조선의 마르크스주의 문사들은 보다 많은 대중들에게 마르크스주의 사상을 보급하기 위해서라도 통속소설의 형식을 차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 논설의 마지막 연재분에서 그는 "총제목을 '마르크스주의적 통속소설의 구도'라 개정하여 둡니다"[3]라고 언급할 정도로 통속소설을 다양한 이데올로기와 결합할 수 있는 하나의 형식으로 정의하고자 시도한다.

소위 '대중화론'이라고 명명되는 김기진의 이 주장은 당시 동료 카프 문인들인 임화, 권환, 안막 등에게 포화와 같은 비판을 받았다.[4] 이들은 지면확보, 독자확보를 골자로 하는 김기진의 논지가 현재 식민지 조선에서 성장하는 노동자들의 운동, 전 세계적으로 발전하는 사회주의 운동의 경향에 뒤처진다고 생각했다. 이들에게 현재 시급한 과제는 더 급진적인 사상을 문학화할 전략을 계발하고, 이를 통해 노동자와 농민의 의식을 성장시키는 것이었다. 이미 잘 알려진 대로, 1928년과 1930년 사이에 김기진의 '대중화론'과 이 논지에 반대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한 논쟁은 정치적 급진주의의 문학적 재현의 필요성을 주장하던 논자들이 카프의 주류가 되면서 종결되었다.[5] 김기진은 카프가 결성된 후로 꾸준히 카프의 대표적 평론가의 입지를 유지했지만, '대중화론' 이후 일선에서 물러난다. 이와 함께 김기진이 주장했던 '마르크스주의적 통속소설'도 더 논의되지 않게 되었다.

문학의 전개』, 소명출판, 2016, 31-33면.

3) 김기진, 「약간의 결어」, 「문예시대관 단편」 9, 『조선일보』, 1928.11.20., 3면.

4) 역설적으로 1930년대 초반 프롤레타리아 문학 창작, 특히 시가 창작에서 김기진이 논한 '대중화' 전략은 적극적으로 활용되었다. 김기진은 프롤레타리아 문학의 대중화를 위한 전략을 시와 소설이라는 장르에 따라 각각 제시하였는데, 이 중 특히 시를 대중화하는 전략은 임화 등에 의해 철저히 비판받았지만 많은 시인들이 그의 방법을 따랐다. 이 점은 2장에서 다시 논의하겠다.

5) 김영민, 『한국문학비평논쟁사』, 한길사, 1992, 175-224면 참고.

그러나 카프가 해소된 후인 1930년대 후반기에 과거 카프 소속이었던 문인들 사이에서 다시 '통속소설'이 화두로 부상한다. 그 주요 논자들은 한설야[6]로 시작해서 이원조[7], 임화, 김남천[8] 등이다. 이 문인들의 '통속소설' 논의들은 김기진이 그의 '대중화론'에서 제기한 억압적 정치적 상황과 부르주아적인 출판환경 속에서 프롤레타리아 문학이 살아남을 방식에 대한 고민과 상당히 유사하다. 이들은 여전히 대중의 기호를 추수한다는 점에서 통속소설에 비판적이기는 하지만, 통속소설이 현재 문단에서 무시할 수 없는 조류이며 이를 분석해야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에는 동의한다. 이러한 경향은 대중화론 논의가 진행될 당시의 분위기와는 사뭇 다르다. 어떤 상황이 통속소설을 바라보는 이들의 시각을 전환하도록 추동하였는가? 1938년에 저널리즘과 문학, 그리고 통속소설에 관해 저술한 임화의 평론들은 이 원인을 탐구하기에 가장 적절하다. 임화는 김기진과 '대중화론'을 둘러싸고 논전을 벌이고, 이후에도 계속 카프는 물론이고 식민지 조선을 대표하는 평론가로서 활동을 해왔다. 1920년대 후반과 1930년대 후반이라는 약 10년에 걸쳐 임화가 통속소설을 어떻게 다르게 인식하고 있으며 여기에 사회적 상황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는 작업은 식민지 조선에서 마르크스주의적으로 문학을 인식하는 시각이 사회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역동적으로 변하는지 밝힐 수 있을 것이다.

임화의 '통속소설'에 관한 논의가 당대 문단적 그리고 사회적 맥락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이미 몇몇 연구자들에 의해 논의된 바 있다. 그의 통속소설에 관한 견해는 연구자들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기도 한다, 이는 그의 논의가 여러 방식으로 독해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선행연구의 경향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하나는 대중화론 이후 줄곧 임화는 통속소설을 저급한 소설의 일환으로서 비판해왔다는 주장이다.[9] 다른 하나는 비록 임화는 대중화론

6) 한설야, 「통속소설에 대하여」 1-5, 『동아일보』, 1936.7.3.-7.8.
7) 박목아, 「신문소설론」, 『조선일보』, 1937.10.20.; 이원조, 「신문소설 분화론」, 『조광』, 1938.2.
8) 김남천, 「조선적 장편소설의 일 고찰: 저널리즘과 문예와의 교섭」, 『사해공론』, 1938.6.; 김남천, 「작금의 신문소설: 통속소설론을 위한 감상」, 『비판』, 1938.12.
9) 조성면, 「1930년대 대중소설론의 전개양상」, 『한국학연구』 제6·7호, 인하대 한국학연구소, 1996, 129-148면; 진선영, 「인조견을 두른 모럴리스트: 김말봉 대중소설 창작방법론 연구」, 『현대소설연구』 제68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17, 193-221면.

당시 통속소설을 논할 가치가 없다고 취급했지만, 그 때보다 일본의 제국주의 통치가 더 억압적으로 변한 1930년대 후반기에 이르면 신문소설이 탄생한 저널리즘 자체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통속소설의 특성을 분석하기 시작했다는 논의다.[10] 마지막으로, 임화가 1930년대 후반기에 통속소설에 보다 진지하게 접근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통속소설을 제일 저급한 것으로 보는 시각은 유지한다는 주장이다.[11]

이상의 선행연구들은 임화 및 다른 이들의 평론에 주목하여 1930년대 후반기의 임화가 통속소설에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었으며 그것이 문단 및 정치적 상황과 어떻게 조우했는지 밝히고 있지만, 이것이 이전의 '대중화론'과 임화가 당시에 쓰던 다른 글들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설명하지 않았다. 대신 '통속소설', '예술성'과 같은 특정 키워드에 주목하여 이 키워드에 대한 임화의 견해를 밝히는 것이 논의의 초점이었다. 이러한 연구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임화의 논의가 당대의 논의들과 비교해볼 때 어떤 차별점을 지니는지 드러낼 수 있지만, 그의 다른 평론 및 그의 사상세계에서 통속소설과 관련된 논의의 위상과 의의를 섬세하게 밝힐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 논문은 이 같은 선행연구의 한계를 임화의 주요 문제의식들에서 그의 통속소설 논의가 그의 문학사의 방법이 충분히 해결하지 못하는 식민지 조선의 문학 특징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밝히는 것으로 해결하고자 한다.

이 논문은 우선, 1920년대 후반기 임화가 김기진의 '통속소설론'을 왜 그리고 어떻게 비판했는지 살펴보겠다. 이것은 이후 임화의 논의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다. 그리고 1930년대 중반기부터 프롤레타리아 문학자들이 통속문학을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들을 분석하면서,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임화의 논의가 차지하는 위상을 논하겠다. 마지막으로 임화의 통속소설 논의가 그의 문학사 논의의 어떤 부분을 보충해주고 있는지 살펴보겠다.

---

10) 오혜진, 「대중소설론의 변천과 의의 연구」, 『우리문학연구』 제22호, 우리문학회, 2007, 297-328면; 강용훈, 앞의 글; 하정일, 「일제 말기 임화의 문화산업론과 대중문화론」, 『한국학연구』 제28호, 인하대 한국학연구소, 2012, 1-27면.

11) 홍정선, 「한국 대중소설의 흐름: 통속소설 문제를 중심으로」, 『한신논문집』 제2호, 한신대 출판부, 1985, 177-198면.

2. 1920년대 후반기 대중화 논쟁 당시의 쟁점의 재해석: 검열과 지면

김기진이 카프 문학의 대중화를 주장하던 당시, 김기진의 주장에 이의를 제기하던 여러 논자 중에서 임화는 가장 적극적으로 그의 주장을 비판했었다. 임화는 「탁류에 항하여」, 「김기진 군에게 답함」, 「시인이여! 일보 전진하자!」라는 세 편의 글로 김기진을 비판한다.[12] 앞의 두 편은 김기진의 대중화론에 대한 전반적인 논지에 대한 비판이고, 다른 하나는 임화의 시 「우리 오빠와 화로」를 대상으로 프롤레타리아 시가의 대중화 방향을 논한 김기진의 논지에 대한 비판이다. 우선, 임화가 김기진의 대중화론의 논지를 전반적으로 비판한 「탁류에 항하여」와 「김기진 군에게 답함」부터 살펴보겠다. 두 글의 논지는 매우 유사한데, 다만 「김기진 군에게 답함」의 후반부에서 제기하는 문제는 주목할 필요가 있으므로 따로 논하겠다. 임화는 김기진이 총독부 당국의 검열을 의식하여 프롤레타리아 문학이 비교적 온건하게 정치적 성격을 표현해야한다는 주장을 무엇보다 강하게 비판한다.

> 이렇게 된다면 결국은 정치적 정세의 호전을 기다리는 소위 그 비겁 극한 '기다리는 태도' 전선에서의 회피라는 도저히 호의로서는 해석할 수 없는 태도에 떨어지는 것이다. 만일 이것의 정당화를 주장한다면 검열이 현재 이상으로 가혹하여진다면 그때의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
> 또 그래도 이 정책이 적용될 것인가. 그러면 우리는 그러한 정세 밑에서 현재부르 예술 이하의 우열한 작품의 생산을 묵묵히 하고 있어야 할 것인가? (…)
>
> 아니다. 그것은 단연코 아니다. 아무러한 더 재미없는 공세에서라도 현실을 솔직하게 파악하여 엄숙하고 정연하게 대오를 사수하는 것이 정당히 부여된 역사적 사명인 것이다. 그런 까닭으로 이러한 난국에 있어서 퇴각적 정책은 반프롤레타리아적이며 결정적인 최대의 오류이다.
>
> 우리는 이러할수록 모든 이론적, 실제적, 일상투쟁에서 언제든지 그들에게 향하여 X세를 취하지 아니하면 아니된다.
>
> 따라서 적의 예봉을 피하기 위하여 기치를 내린다는 것은 합리화이며 퇴각을 위한 퇴각인 것이다.[13]

---

12) 임화, 「탁류에 항하여」, 『조선지광』 제86호, 1929.8.; 「김기진 군에게 답함」, 『조선지광』 제88호, 1929.11.; 「시인이여! 일보 전진하자!」, 『조선지광』 제91호, 1930.6.

임화는 김기진이 현재 검열제도 등 프롤레타리아 문학을 대중들에게 발표하기에는 호의적이지 않은 시대적 상황을 언급하면서 정치적 표현을 조절해야한다는 주장에 초점을 맞추면서 이러한 방법은 '열등한' 프롤레타리아 문학 생산이라는 결과를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임화가 김기진이 「문예시대관 단편」, 「변증법적 사실주의」, 「대중소설론」 등에서 주장한 노동자와 농민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문학을 창작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오직 그가 정치적으로 급진적이기만 한 문학을 창작하기 어려운 물질적 조건을 논한 부분만 비판한 것은 한편으로는 김기진의 창작방법론에는 크게 흠잡을 것이 없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대신, 임화의 글은 김기진의 주장을 정치적 선전은 도외시하고 온건한 문학을 창작할 방법을 모색한 것처럼 축소시킴으로서 프롤레타리아 문학 진영 안에서 검토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취급한다.

실상 임화가 위 인용문에서 언급하는 "그들에게 향하여 X세를 취하"는 것은 김기진의 논의가 의도하는 것이기도 하다. 김기진은 그가 본격적으로 프롤레타리아 문학의 대중화 전략을 제시한 「변증적 사실주의」에서 노동자와 농민들을 부르주아적인 이데올로기를 설파하는 '통속소설'로부터 격리하기 위해서라도 프롤레타리아 문학이 통속소설의 방법론을 참고해야한다고 주장한다.[14] 이를 위해서는 프롤레타리아 문학이 독자 대중들을 끄는 힘이 있어야 하고, 대중들의 기호에 맞는 작품들을 창작하여 독자들에게 제시해야한다는 것이다. 김기진이 '통속소설'적인 문학을 창작해야한다는 주장을 펴는 목적은 부르주아지 문화에 침윤된 대중들을 프롤레타리아 문학의 독자로 전환시키기 위해서이다. 이는 궁극적으로는 임화와 크게 다르지 않다.

임화가 김기진을 비판하는 주요 논지인 '검열을 의식한 창작'은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것이 김기진을 비판할만한 이유인지 의문을 가지기에 충분하다. 식민지 조선에서 모든 합법적 출판물은 총독부의 검열을 거치지 않고서는 출판될 수 없었다. 그렇다면 프롤레타리아 문학 작가가 검열을 피하면서 자신

13) 임화, 「탁류에 항하여」, 임화문학예술전집 편찬위원회 편, 『임화문학예술전집: 평론1』 4, 소명출판, 2009d, 141-142면.
14) 김기진, 「문예시대관 단편: 통속소설 소고」, 홍정선 편, 『김팔봉 문학전집: Ⅰ. 이론과 비평』, 문학과지성사, 1988, 121-122면.

이 의도하는 정치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전략을 구상하는 것은 큰 잘못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왜 임화는 김기진을 비판했는가? 김기진이 제시한 창작방법론을 넘어서는 더 효과적인 전략을 그는 알고 있었던가? 그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임화가 「김기진 군에게 답함」의 마지막 단락에서 언급한 기관지의 문제를 상기할 필요가 있다.

> 그리하여 우리는 모든 방법을 다하여 모든 기회마다 …… …… 우리들의 행동(주로 문학)의 주축(柱軸)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
> 우리가 과거에 가지고 있던 오견, 주로 부르신문과 부르잡지를 통하여서만 행하던 운동(주로 작품) 경향 즉 우리들 자신의 기관의 강대화보다도 다른 기관의 이용을 과중평가한 그것을 단연히 극복하여야 한다는 것이다.[15]

임화는 카프가 기관지를 간행함으로서 부르주아 출판물에 의존하지 않고서도 검열을 우회하여 정치적으로 급진적인 메시지를 담은 문학을 발표할 수 있다고 확신했던 듯하다. 그러나 임화의 전략은 그가 가정하는 독자가 노동자와 농민이었다면 거의 불가능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임화가 이 글을 발표한 1929년 당시, 카프가 식민지 조선에서 합법적으로 기관지를 간행할 가능성은 요원했다. 카프는 1927년에 기관지 『예술운동』을 식민지 조선에서 간행하려고 했으나 검열로 인해 카프 도쿄지부에서 활동하던 김두용을 발행인으로 내세워 일본에서 간행해야 했다.[16] 카프 도쿄지부 구성원들이 주축이 되어 1929년에 간행한 『무산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일본에서 간행되었다. 모두 한국어로 출판된 이 간행물들은 식민지 조선에서는 공식적으로 유통될 수 없었고,[17] 불법적인 경로로만 암암리에 유통되었다. 『예술운동』은 1928

15) 임화, 「김기진 군에게 답함」, 앞의 책, 2009d, 154면.

16) 박경수, 「일제하 재일 문학인 김두용의 반제국주의 문학운동 연구: 제3전선사에서 코프(KOPF)의 해체까지」, 『우리문학연구』 제25호, 우리문학회, 2008, 301면.

17) 「불허가 차압 및 삭제 출판물 목록」, 『조선출판경찰월보』 9, 1929.6.에서는 무산자 제3권 제1호가 조선에 유입되었으나 출판경찰에 의해 차압당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본에서도, 식민지 조선에서도 불법출판물로서 식민지 조선과 일본의 법역에 의해 허용된 문역을 넘어설 수 있었던 『무산자』의 성격에 대해서는 한기형, 「"법역(法域)"과 "문역(文域)": 제국 내부의 표현력 차이와 출판시장」, 『민

년 2월에도 1・2월 합본호를 간행하고 식민지 조선으로 반입하려고 했었지만,[18] 총독부에 의해 발매・반포를 금지당했다.

식민지 조선에서 검열은 프롤레타리아 문인들의 글이 대중들에게 보급될 수 없었던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 프롤레타리아 문인들은 이 사실을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일찍부터 검열 문제에 관심을 기울였다. 『예술운동』의 창간호에는 '검열제도개정기성동맹'의 선언, 강령, 규약이 제시되어 있다.[19] 이 단체는 1927년 7월 13일에 일본에서 조직되었고, 일본공산당의 주도하에 일본의 사회주의 단체들이 연합하여 창립된 일본 정부의 검열에 반대하는 조직이다. 이 동맹에 참가한 조직 명단 중에서 카프는 찾을 수 없지만, 카프가 자신들의 기관지에 이 단체를 소개하는 것으로 보아 프롤레타리아 예술 창작과 보급에 검열이 방해물이 된다는 의견에 동의했다고 볼 수 있다.[20]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 잡지는 매우 소수의 사람들 사이에서만 유통됨으로서 카프 구성원들의 주장이 대중들에게 닿을 수는 없었다. 카프가 표현의 자율성을 주장하고 자신들의 의견을 설파하기 위한 공간을 확보하는 동안, 이들의 주장과 문장들은 그들의 주요 포섭 대상인 노동자와 농민들로부터 멀어지는 상황이 지속되었던 것이다.

임화만이 아니라 김기진 역시 기관지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였다. 그러나 그가 생각하는 기관지에 실려야할 프롤레타리아 문학은 정치적 급진주의를 극대화한 것이 아니라 그가 주장한 창작방법론에 따라 창작된, 대중들에게 호소력이 강한 것이다. 또한 그는 기관지를 간행하여 다양한 예술방면에서 프롤레타리아 이데올로기를 조직적으로 확산시키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현재의 조건에서 이 기획이 바로 실행될 수 없다는 것을 의식하여 잡지와 신문, 특히 노동자와 농민들이 많이 읽는 신문에 프롤레타리아 작가들이 그들의 작품을 게재해야 한다고 강조한다.[21] 김기진과 임화 모두 카프가 문학을 발표

족문학사연구』 제44호, 민족문학사학회, 2010, 309-339면.

18) 「『예술운동』1・2호」, 『이입수입 불온간행물 개황』, 경성지방법원검사국, 1928.

19) 「검열 제도 개정 기성 동맹 선언, 강령, 규약」, 『예술운동』, 1927.11., 54면.

20) 스가이 유키오, 박세연 역, 『쓰키지 소극장의 탄생: 한・일 근대연극의 요람』, 현대미학사, 2005, 84-86면.

21) 김기진, 「예술의 대중화에 대하여: 신년은 이 문제의 해결을 요구」, 앞의 책, 171-173면.

할 수 있는 매체를 중시했다. 하지만 전자는 새로운 매체는 물론 기존의 매체도 활용해야한다는 입장이었고, 후자는 기존의 매체의 정치적 성격에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매체를 이용해야만 한다는 입장이었다. 임화가 추구하는 매체는 식민지 조선의 현실에서 간행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두 사람의 주장 중 김기진의 주장이 더 구체적이고 실현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러한 차이는 김기진의 목적이 카프의 문학이 본래의 임무를 다하지 못하는 상황을 타개하겠다는 실용성을 추구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김기진의 주장이 가지는 실용성, 대중성, 현실성은 당시 카프 문인들이 공개적으로는 그의 주장을 비판했지만 비공개적으로는 그의 주장을 상당부분 수용한 원인이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는 『카프 시인집』이 있다.[22] 대중화논쟁이 이미 끝난 뒤인 1931년 11월에 간행된 이 시집에 수록된 시들을 보면, 김기진이 카프 시를 대중화하기 위해 적절한 양식이라고 주장했던 '단편서사시'의 형식 및 주제를 바탕으로 창작된 시들이 다수를 차지한다.[23] '단편서사시' 형식 역시 임화를 필두로 한 카프 논자들에 의해 비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카프 시인집』과 같은 결과물이 나왔다는 것은 카프 구성원들 역시 김기진의 창작방법론의 유효성을 인정했다는 증거이다.[24] 따라서, 임화가 1920년대 후반기와 1930년대 초반기에 '통속소설적인' 창작방법론을 감정적으로 맹렬하게 비판한 것을 두고 그가 김기진이 제시한 창작방법론을 완전히 반대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카프 시인집』은 임화를 비롯한 주요 카프 성원

22) 이 시집은 박영희, 박세영 등 카프 성원이자 이 시집의 발간에 참여한 사람들로부터 카프를 대표하는 시가들을 엮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배상미, 「가부장적 억압과 혁명성의 경계에 선 여성들: 『카프 시인집』 수록 시편들의 여성 청자와 화자」, 『한국학연구』 제50호, 인하대 한국학연구소, 2018, 38-40면 참고.

23) 이 시집은 발간 이후 몇 년에 걸쳐, 심지어 카프가 해산한 이후에도 대중들로부터 꾸준하게 인기를 얻는다. 1930년대 중반까지 대중들에게 사랑받는 책의 목록에 오를 만큼 이 시집의 인기는 상당하였다. 전희선, 「베스트셀러로서의 『카프시인집』 의미 연구」, 『한중인문학회』 제61호, 한중인문학연구, 2018, 29-52면 참고.

24) 여러 카프 문인들이 김기진의 대중화론을 비판했지만, 카프 문인들을 비롯하여 당시 프롤레타리아 문학을 창작했던 작가들은 김기진이 제시한 창작방법론과 유사한 방식으로 소설을 창작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에 대해서는 배상미, 「1930년대 초반 프롤레타리아 소설의 계급의식과 여성 동성사회성」, 『현대문학의 연구』 제67호, 현대문학연구학회, 2019, 7-45면; 앞의 글, 2018, 31-65면 참고.

들이 당시 김기진의 정세 판단과 그가 제시한 창작방법론에 상당 부분 동의했다는 것을 증명한다. 임화가 1930년대 후반기에 발표한 통속소설 및 문학사 관련 논의들에 나타난 '매체'에 대한 고민은 이 지점을 잘 보여준다.

3. 1930년대 후반기 통속소설 담론의 성장: 부르주아 문학의 재발견과 저널리즘의 성격 규명

카프는 1935년에 총독부에 의해 정치단체로 규정되고, 그들의 문예운동이 정치활동으로 간주되면서 결국 해소한다.[25] 카프가 해소된 이후, 과거 카프에 소속되어 활동하던 문인들의 논의 경향은 조금씩 바뀌기 시작한다. 흥미롭게도, 1930년대 후반기에 들어서면, 과거 카프에 소속되었던 문인들이 신문과 잡지 같은 매체와 여기에 연재되는 통속소설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다. 앞서 언급했던 한설야, 김남천, 이원조 등이 바로 그들이다. 이러한 문인들 속에서 임화의 논의도 존재했다. 우연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이상의 논의들은 1936년 이후, 그리고 1938년에 가장 많이 눈에 띈다. 이 원인은 다음의 두 가지로 분석될 수 있다.

하나는 1930년대 후반기는 식민지 조선에서 출판시장이 활성화되고, 독서인구들이 늘면서 대중문화가 성장한 시기였다.[26]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에 따라 문인들도 인기 있는 문학은 독자들의 어떤 욕망을 자극하는지, 그리고 독자들은 어떤 소설들에 열광하는지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과거에 카프 맹원으로 활동했던 이들은 카프 해소 이후 작가 개인으로서 독자들을 만나야 했다. 이전보다 급진적인 문학을 발표할 지면은 축소되었지만, 소설 출판과 연재는 성황을 이루던 당시 식민지 조선의 문단 상황에서 그들은 현재의 현상을 객관적으로 인식해야했다.

다른 하나는 프롤레타리아 문학 운동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카프에 소속되었던 문인들은 기존에 존재하는 문학 발표 지면들과 문학이 어

25) 권영민, 『한국 계급문학 운동사』, 1998, 문예출판사, 314-348면.
26) 천정환, 『근대의 책읽기』(2판), 푸른역사, 2014, 308-315면.

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본격적으로 고민하게 되었다. 앞서 대중화논쟁에서 살펴보았듯이, 정치적으로 급진적인 메시지를 담은 문학을 창작하자는 주장은 카프의 기관지를 만들면 가능하다는 결론으로 수렴되었다. 이 기관지는 정치적 급진주의를 주장하는 문학 창작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카프 해소 이후에는 기관지 제작을 상상하는 것조차 불가능해졌으므로, 신문이나 잡지, 특히 식민지 조선에서 대다수 장편소설의 발표 지면이었던 신문에 대한 관심이 커지게 된 것이다.

임화가 통속소설에 관심을 가진 이유도 이 두 원인과 무관하지 않다. 특히 임화는 1935년에 「조선 신문학사론 서설」을 발표한 이래 근대 소설들이 발전해온 과정에 큰 관심을 보여 왔다. 1930년대 전반기와는 달리, 1930년대 중후반은 '통속소설'을 제외하고 소설사를 논할 수 없을 정도로 '통속소설'의 영역이 상당히 성장하였다. '통속소설'이란 고전문학이나 신소설류[27]와 구별되는 근대적인 형식과 사상을 담은 소설을 지칭한다.[28] 1920년대에만 해도 대중들이 주로 읽는 소설은 근대 이전에 창작된 고전문학이었다.[29] 그러나 193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 근대소설들도 인기 도서 목록에 오를 만큼[30] 대중들의 주목을 받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문학사를 서술하던 임화가 통속소설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었다.

임화는 1935년에 「조선 신문학사론 서설」을 발표한 이후부터 식민지 조선

27) 고전소설과 '근대소설'을 구별하는 기준과 방법은 지금도 논쟁의 여지가 존재한다. 그러나 이 장의 목적은 고전소설과 근대소설의 구별 이전에 임화가 통속소설을 분석하게 된 원인이므로 당시 문인들이 합의했던 구별에 따라 근대 계몽기 이전에 출간되었던 소설들을 고전소설로, 근대 계몽기와 이광수의 『무정』 이전에 일본의 '정치소설'의 영향을 받아 창작된, 그리고 19세기 말 일본의 '정치소설'을 번안한 소설들을 '신소설'로 명명하겠다. 마지막으로 이광수의 『무정』이후에 그의 소설 양식과 서구 근대 소설 양식에 영향을 받아 창작된 소설들은 '근대소설'로 명명하고자 한다.

28) 임화는 통속소설을 "현대문학이 발전해온 도중에서 파생한 어디까지든지 현대적인 소설의 일종"이라고 정의하여 통속소설의 근대성을 인정한다. 임화, 「통속소설론」, 임화문학예술전집 편찬위원회, 『임화문학예술전집: 문학의 논리』 3, 소명출판, 2009c, 307면.

29) 김기진도 「대중소설론」에서 그가 이 글을 발표한 1929년 당시의 대중들은 근대소설의 일환인 통속소설이 아니라 『옥루몽』, 『구운몽』, 『춘향전』, 『조웅전』, 『유충렬전』, 『심청전』과 같은 고전소설이나 『추월색』, 『강상루』, 『재봉춘』 등과 같은 신소설 혹은 딱지본 소설을 많이 읽는다고 언급했었다. 김기진, 「대중소설론」, 『동아일보』, 1929.4.14.-20.

30) 「서적시장조사기」, 『삼천리』, 1935.10., 136-139면.

의 문학이 발전해온 제반 조건들을 염두에 두면서 월평(月評)을 쓰거나 동시대의 문학이, 혹은 식민지 조선의 '근대' 문학이 기초를 두고 있는 물질적 조건들을 분석하는 글들을 발표한다. 이 글들은 모두 그가 문학사를 서술하려는 준비단계의 작업들로 보인다. 1938년에 그는 다른 문학들보다 특히 잡지 지면과 소설의 성격에 주의를 기울인다. 이에 해당하는 글들로는 「잡지문화론」, 「문학과 저널리즘과의 교섭」, 「문화기업론」, 「속문학의 대두와 예술문학의 비극: 통속소설론에 대하여」[31] 등이 있다.[32] 이 글들을 임화가 카프 맹원이던 시기의 글들과 비교해볼 때 크게 세 가지의 차이점이 존재한다.

우선 그는 문학을 자본주의 체제 안에 있는 교환대상으로 인식했다. 그는 식민지 조선에서 대중에게 문학이 전달되는 매체인 신문, 잡지 등의 출판물이 자본주의 유통구조 안에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러한 자본주의 구조 하에서 저널리즘은 자본을 증식시킬만한 가치가 있는 대상을 주요 출판 대상으로 삼게 된다. 그러나 임화는 저널리즘에 투하된 자본은 증식하는 성격만이 아니라, "사회, 공중의 문화적 복지를 추구한다는 보편적 형식 가운데 표현되는 하나의 문화의식"[33]이 있다고 보았다. 그렇기 때문에 식민지 조선의 저널리즘은 상업적인 것만이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소설들을 게재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식민지 조선의 문단은 발전하였다. 그는 이 같은 저널리즘의 성격을 '자유주의'로 설명한다.

> 하지만 지금 우리가 말하는 저널리즘은 제가 의거한 사회적 지반 그것의 존폐 여하를 불구하고 경제상의 이득을 목표로 온갖 것을 다 싣느냐 하면 물론 그렇지 않은 것은 상상할 수가 있다.
>
> 따라서 이런 때 경제상의 이유가 중대는 하지만 전체로서는 그실 자유주의 정신의 발로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

---

31) 이 글은 임화가 『문학의 논리』, 학예사, 1940에 재수록하면서 제목이 「통속소설론」으로 바뀐다. 이 논문에서는 이 글을 인용할 때 『동아일보』에 게재된 판본 대신 이 글의 최종 발표본인 『문학의 논리』에 게재된 것을 인용하겠다. 또한 이 글을 명명할 때에도 「통속소설론」으로 지칭하겠다.

32) 임화, 「잡지문화론」, 『비판』, 1938.5.; 「문학과 저널리즘과의 교섭」, 『사해공론』, 1938.6.; 「문화기업론」, 『청색지』, 1938.6.; 「속문학의 대두와 예술문학의 비극: 통속소설론에 대하여」, 『동아일보』, 1938.11.17-27.

33) 임화, 「문학과 저널리즘의 교섭」, 임화문학예술전집 편찬위원회, 『임화문학예술전집: 평론2』 5, 소명출판, 2009e, 49면.

> 즉 그러한 문학까지를 보도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할 정신적 여유가 사회생활 가운데 있을 때 저널리즘은 자유주의적일 수 있는 것이다.
>
> 그러므로 문학과 저널리즘과의 관계는 사상상의 관계이고, 더 나가선 정치와 문학과의 관계이다.[34]

임화는 과거의 저널리즘이 '자유주의' 정신을 추구했기 때문에 경제적 이득이 보장되지 않는 기사들이나 문학들을 실었다고 분석한다. 다양한 사상들의 공존이 저널리즘의 본연의 임무라면, 상업성을 보증할 만하지 않는 문헌들도 저널리즘에 자리를 얻어 대중들에게 공개될 수 있다. 그렇다면 임화는 식민지 조선의 언론계를 자유주의적이라고 인식한 것일까? 당시 총독부는 식민지 조선에서 제일 오래된 신문인 『매일신보』의 간행을 주관하고 있었고, 『조선일보』, 『동아일보』, 『조선중앙일보』 등 주요 일간지들도 총독부의 검열을 거쳐야 출간될 수 있었다. 또한 기업들의 광고를 게재하여 정기적인 간행을 유지하는 신문들을 자본주의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자유주의적 가치를 추구했다고 단정하는 것은 섣부른 판단으로 보이기도 한다.[35] 그 역시 이 글에서는 저널리즘을 자유주의적이라고 판단했지만, 다른 글에서 그 판단을 조금 달리한다.

다른 하나는 문학이 게재되는 지면의 속성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1920년대 후반기에 그는 카프의 기관지가 아닌 지면들을 모두 부르주아 출판물로 간주했다면, 1930년대 후반기에는 각 저널리즘의 성격은 그것이 가진 속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보았다. 특히 그는 간행기간과 이로 인한 기사의 선별방식의 차이를 언급하면서 신문과 잡지를 명확하게 구별한다. 신문은 매일 간행되므로 사건의 경중을 따질 시간적 여유가 없지만, 잡지는 한 달이라는 시간이 있으므로 그들은 신문보다 더 비판적 거리를 두고 보도할 가치가 있는 사회현상을 선택할 수 있다. 이러한 분류법은 그가 간행물들을

34) 같은 책, 53면.

35) 『매일신보』를 제외하고 1920년대에 창간된 이들 신문사들은 창간 초기의 목적은 상업주의가 아니었지만, 1924년 처음 문예면을 창설하고, 점차 검열이 강화되어가는 상황에서 정치적 기사보다는 문화와 관련된 기사를 더 많이 게재하기 시작했다. 특히 이러한 경향은 1930년대로 접어들면서 강하게 나타난다. 한만수, 「문학이 자본을 만났을 때 한국 문인들은?: 1930년대 문예면 증면과 문필가협회 결성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연구』 제43호, 동국대 한국문학연구소, 2012, 265-276면.

단순히 부르주아 출판물과 그렇지 않은 출판물로 나누던 과거에 비해 더 구체적이고 정치해진 것이다. 나아가 그는 간행물이 간행되던 사회적 상황, 그리고 경제적 조건의 변화들에 보다 초점을 맞춘다.

> 『개벽(開闢)』『조선지광(朝鮮之光)』, 이 두 조선문화사상 특기할 잡지가 최근년간까지 조선의 사상계와 문예계를 좌우하고 공헌한 것은 실로 신문보다 크다.
>
> 이 두 잡지의 특색은 조선서 드문 정치시사 비평의 잡지를 향수(享受)받은 신문지법에 의한 잡지였다는 점에서 비로소 종합잡지로서 기능을 다했다는 점에서 필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
> 조선에서 이런 종합잡지가 이 두 가지 밖에 못 나왔다는 것은—그 외에도 몇 가지 있었으나 일반적으로 읽혔던 것은 아니었다—다른 조건도 많겠지만 조선의 법률관계의 특수성에 연유함이 불소(不少)하다. 신문잡지의 이런 특수성이 최근년 간에 와서 조선문 신문의 정치적 가치가 점차로 저하하는 바람에 반대로 문화적 가치가 증대하게 된 것은 기현상이라 아니할 수 없다. 학예면의 증대가 그것이다. 이리하여 신문 학예면은 문단의 중심이 되고 그 반면, 권위 있는 문예잡지가 하나도 없게 되었다.
>
> 뿐만 아니라, 신문사가 정치적 가치를 상실해 가는 반면 차차로 기업적으로 성장하여 각기 종합잡지—그실 정치비평이 없는 취미문화나—를 발행하여 순연한 자본의 힘으로 잡지계의 왕좌를 점하여 오늘날엔 잡지라고는 이것밖에 없는 형편이 되었다.[36]

임화는 위 인용문에서 종합잡지, 그 중에서도 『개벽』과 『조선지광』이 식민지 조선의 사상과 문학의 성장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고평한다. 두 잡지는 이미 선행연구들에서도 사회주의적 정치평론과 문학 등을 많이 간행한 종합지로 연구된 바 있다.[37] 흥미로운 것은 두 잡지가 간행된 시기인데, 『개벽』은 1920년부터 1926년까지 간행되었고,[38] 『조선지광』은 1922년에 창간되어

---

36) 임화, 「잡지문화론」, 앞의 책, 2009e, 37-38면.

37) 선행연구들 중 한기형은 『개벽』은 종합지로서 사회주의 담론을 생산했지만, 사회주의 담론을 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창간된 『조선지광』은 총독부의 검열체제를 인정하여 대중들에게 사회주의가 가진 혁명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총독부의 통제 능력을 반증함으로서 오히려 사회주의 담론의 급진성을 약화시켰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기형, 「식민지 검열정책과 사회주의 관련 잡지의 정치역학—개벽과 조선지광의 역사적 위상 분석과 관련하여」, 『한국문학연구』 제30호, 동국대 한국문학연구소, 2006, 171-202면.

1932년에 종간되었다. 두 잡지의 성장 시기는 사회주의 운동의 탄생 및 성장기와 거의 일치한다. 임화는 "신문지법"과 "조선의 법률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해, 두 잡지 외에 조선의 사상계와 문예계에 영향력을 행사한 잡지는 탄생하기 어려웠다고 분석한다. 1920년대 후반과는 달리 그는 검열이 정치적 의지만으로 돌파할 수 없는 종합잡지 출판의 거대한 벽임을 시인한 것이다.

그는 같은 글의 앞부분에서 3.1운동 이후, 식민지 조선인들의 주도로 신문들이 창간되기 시작할 당시에는 이 신문들은 강한 정치적 성격을 가졌지만, 1930년대 중후반기에 접어들면서 기업화하기 시작했다고 분석한다. 이러한 기업화 현상에 따라 상업성이 더 짙었던 문화면이 정치면보다 증가하면서 신문에 연재되는 소설의 수가 늘어난다. 이에 따라 신문이 잡지에 소설을 연재하던 작가군들을 흡수하였고, 작가들이 신문의 요청에 맞게 문학을 창작하게 된다. 임화의 이러한 분석은 문학 생산의 근본적인 기반인 지면과, 이 지면이 변화하게 된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조건을 살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리고 소설의 창작이 자본주의의 발전단계와 호흡하면서 변화한다는 점을 분석하여, 뚜렷한 작품세계를 가진 작가라고 할지라도 그의 작품이 문학 창작의 물질적 조건의 변화로부터 완전히 독립적일 수는 없음을 제시하였다. 이는 그가 「통속소설론」에서 신문연재소설을 창작하는 작가들의 작품들을 직접 분석하면서 더 노골적으로 드러난다.

마지막으로 임화는 과거에는 상대의 주장을 비하하는 용도로만 사용했던 용어인 '통속소설'을 분석하기 시작한다. 그가 '통속소설'에 관심을 보인 이유는 저널리즘의 상업주의가 성장하면 할수록 더욱 많은 작가들이 '통속소설'을 창작하고, 김말봉으로 상징되는 상업적인 것만이 목적인 소설의 간행이 앞으로 더욱 가속화되리라는 판단 때문이었다. 임화는 「통속소설론」에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는데, 이는 그가 현재 신문지면을 중심으로 성장하는 통속소설과 기존의 신문연재 소설을 구별하여 현재의 상황을 특수한 것으로 놓고 분석하려는 욕망이 두드러지는 부분이다.

---

38) 『개벽』은 1935년에 복간되기는 했지만, 임화가 언급하는 『개벽』은 복간 이전의 것을 의미한다.

> 그 전의 신문소설이란 것은 기실 신문에 발표되었다 뿐이지 본질에 있어선 예술소설이라 할 수 있었다. 예전 『매신(每新)』이나 『동아(東亞)』에 실리던 춘원의 소설을 비롯하여 상섭(想涉), 빙허(憑虛) 혹은 그 뒤의 제(諸) 작가의 소설이 다 신문을 장편소설 발표의 유일의 기관으로 생각해 왔었고, 사실 조선문단(내지는 출판계)의 현실이 장편을 원고 채 인쇄할 능력이 없었고, 잡지가 그것을 감당해 나가기 어려웠던 만큼 실제 조선 장편소설은 신문에 의거하여 발전해 온 것이다.
>
> 그러나 신문이 점차 기업화의 길을 더듬고 저널리즘이란 것이 그전과 같이 계몽성에서 현저히 상업성을 띄게 되자, 장편소설 발표의 조선적 특수성인 신문과 문학과의 관계는 일종의 모순을 정(呈)하게까지 되었다.
>
> (…)
>
> 그러므로 자연 부분적으로 상업성과 타협해 가는 길, 요컨대 절충적인 방도를 취한 것이다.[39]

위 인용문에서 임화는 당시의 신문소설과 그 이전의 신문소설을 구별한 후, 이전의 신문소설이 상업성과 타협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고 평가한다. 그리고 그 결말은 당시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던 소설가 김말봉과 같이 "최초부터 통속소설을 들고 나온 작가"[40]를 낳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위 인용문은 임화가 자신의 주장을 극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몇 가지 부분들을 과장한 것으로 보인다. 임화는 1934년 2월 『형상』에 발표한 글에서 이광수와 염상섭이 문학을 모든 현실적 토대로부터 자유로운 것처럼 치부하여 대표적인 반동적인 문사들로 분류될 만하다고 언급했었다.[41] 이들의 작품이 지닌 가치를 인정하지 않던 임화가 돌연 통속소설론을 전개하면서 둘의 문학을 '예술소설'이라고 칭송한 것은 오랜 기간 신문에서 소설을 적극적으로 연재하던 두 사람의 작품 경향을 최근의 신문연재 소설과 대조하기 위해서였다. 즉, 두 사람의 작품과 당시의 통속소설을 비교 및 분석하여 두 사람의 작품이 어떤 점에서 통속소설보다 우수한지 판단하여 나온 결과가 아니다.

다른 하나는 김말봉이 마치 문단생활을 『밀림』으로 시작한 것처럼 서술한다는 점이다. 김말봉은 1932년 1월 『조선중앙일보』의 신춘문예에서 기생이

39) 임화, 「통속소설론」, 앞의 책, 2009c, 313-314면.
40) 같은 책, 312면.
41) 임화, 「현대의 문학에 대한 단상」, 앞의 책, 2009e, 389-393면.

었던 여성이 사회주의자로 성장해나가는 과정을 그린 「망명녀」라는 단편으로 등단하였다. 임화가 김말봉의 과거 문학 활동을 인지했었는지 그렇지 않았는지는 정확하지 않다. 하지만, 그가 김말봉을 마치 『밀림』으로 등단한 인물처럼 서술하여 김말봉의 등장을 1930년대 중반 저널리즘과 문단의 변화를 상징하는 극적인 사건으로 제시하려는 의도는 잘 드러난다. 그렇다면 그가 약간의 사실 왜곡과 기존에 그가 지지하지 않았던 작가들의 작품을 '예술소설'이라는 명칭을 붙여가며 입장을 바꾼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임화의 '통속소설' 논의 및 신문과 잡지에 연재한 소설들을 인식하는 시각을 보다 면밀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임화가 1935년부터 시작했던 문학사 작업을 검토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4. 임화의 문학사론과 통속소설론의 관계

임화가 그의 문학사 작업의 초안을 보여준 1935년의 글 「조선 신문학사론 서설」의 목적은 신경향파 문학의 가치를 비하하는 논자들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조선의 근대 문학사의 흐름 안에서 신경향파 문학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것이었다. 이 글에서 임화는 조선의 근대 문학사를 서술하면서 이 문학사가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조건과 상호작용한 결과라는 점을 반복해서 강조한다. 하지만 식민지 조선의 문학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조건의 변화로 인하여 서구 근대의 문학사조가 변천해나간 과정에 발맞추어 변증법적으로 '발전'해나갈 수 있었는지 밝히지 못한다.[42]

42) 임화의 이러한 문학사 서술은 그가 「조선 신문학사론 서설」에서 비판하기도 했던 신남철의 문학사 서술과 비교해보았을 때 잘 드러난다. 신남철은 「최근 조선문학사조의 변천: 〈신경향파〉의 대두와 그 내면적 관련에 대한 한 개의 소묘」, 『신동아』, 1935.9.에서 식민지 조선의 사회운동의 경향이 변화하면서 식민지 조선의 문학 창작 경향도 변화했다고 보았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탄생한 신경향파 문학은 "역사적 등장에 대한 과학성 급(及) 진리성에 대한 주체적 이해를 가지지 못하고 아직도 개별적 주관적 분산적인 관찰력을 소유함에 불과하였다. 이것이 이 '신경향파'가 자기를 배태하여 낳아준 사회적 물질적 지반과 그 변이(變異)의 도(度)를 같이 하는 것이나 적어도 이름부터 '신경향파'라고 불러지기에 부끄러움이 없자면 세계관과 과학성의 획득을 위하여 노력하지 않으면 아니"되었을 정도에 불과한 것이었다. 즉, 신남철은 당시 사회운동의 발전상황에 비추어 보았을 때 신경향파 문학이 내포한 내용적 측면과 정치적 측면이 당시의 시대적 변화에 충분히 호응하지 못했다

이후 임화에게 역사적이고 변증법적 관점에서 식민지 조선 문학의 변천 과정을 서술하려는 고민은 계속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1939년부터 임화는 「개설 신문학사」, 「신문학사」, 「속 신문학사」, 「개설 조선신문학사」를 통해 조선의 '근대 문학사'의 특징과 전개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근대 문학이 등장한 역사적, 사회적, 정치적 배경과 이 문학사를 서술하기 위한 방법을 논한다.[43] 이것에 추가하여 조선의 근대 문학의 전사라고 할 수 있는 신소설을 중심으로 이것이 가지는 근대성을 내용적 측면에서 살핀다. 이 글들에서 임화는 신문학이 본격적으로 어떻게 변증법적으로 '발전'해나가는지 논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 글에서 언급한 신문학이 나오게 된 배경은 그가 무엇을 신문학의 탄생을 촉발시킨 것으로 보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임화는 「개설 신문학사」에서 신문학이 생산되는 조건을 "물질적인 배경"과 "정신적인 준비" 두 가지로 나눈다. 이 물질적 배경에는 「조선 신문학사론 서설」에서와는 달리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조건이 아닌, 개항을 전후한 시기에 조선 왕조 및 대한제국의 국제관계와 이 과정에서 이루어진 강화도 조약, 갑오개혁과 같은 정치적인 요인들이 주로 언급되어있다. 그리고 이 요인들은 조선이 '근대'화하기 위한 토대들을 조선 내부가 아닌 외부에서 받아들이게 된 상황을 야기한 배경이다. 다른 한편으로, "정신적인 준비"에는 조선이 이미 근대화한 국가들과 만나면서 근대적인 사상들을 조선이 어떻게 받아들였고, 이것이 '정신적' 근대화에 어떻게 기여했는지 설명한다. 흥미롭게도 임화는 "정신적인 준비"에 "저널리즘의 발생과 성장"을 포함시킨다. 이것은 「문학과 저널리즘의 교섭」에서 임화가 저널리즘을 정치적인 목적에서 출판된 간행물로 인식한 방식과 맞물린다.

저널리즘은 식민지 조선의 문학이 주로 발표 지면으로 삼아왔기 때문에,

고 평가한 것이다. 임규찬・한기형 편, 『카프시대에 대한 회고와 문학사』, 태학사, 1989, 186면. 임화는 이 같은 신남철의 의견에 이의를 제기하며 「조선 신문학사론 서설」에서 식민지 조선 문학이 서구 문학 장르를 받아들이며 발전하는 과정에서 신경향파 문학이 차지하는 위상을 재검한다. 임화가 생각하는 신경향파 문학의 가치는 신남철처럼 당대 사회 변화에 얼마나 호응하였는가가 아닌, 문학의 발전 과정에서 차지하는 위치에서 발견되는 것이다.

43) 임화, 「개설 신문학사」, 『조선일보』, 1939.9.2.-10.31.; 「신문학사」, 『조선일보』, 1939.12.8.-12.27.; 「속 신문학사」, 『조선일보』, 1940.2.2.-5.10.; 「개설 조선신문학사」, 『인문평론』, 1940.11.-1941.4.

조선의 근대 문학의 발전과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조건의 하나이다. 임화가 이 저널리즘의 발생과 성장을 "정신적인 준비"로 분류한 것은 그만큼 저널리즘이 대한제국기부터 식민지 조선에 이르기까지 근대적 정신적 유산의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상 저널리즘은 앞서 언급했듯이 그 어느 영역보다 식민주의와 자본주의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영역이었고, 임화도 그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왜 임화는 저널리즘을 "정신적인 준비"로 분류하였던가? 임화는 「조선 신문학사론 서설」과 「신문학사의 방법」에서 반복적으로 문학은 정신문화의 정수이며 동시대의 시대정신을 재현한다고 언급한다. 이렇듯 임화의 문학사는 문학이 당대의 시대정신을 드러내는 양상을 규명해내는 것이어야 했다. 이 과정에서 그가 과거 '부르주아 문인'이라고 비판했던 이광수와 염상섭 등을 재호출하는 이유도 1920년대 조선의 '신문학'이 서구의 문예사조를 받아들여 변증법적으로 발전해나가는 정신사적 과정에서 이들이 전형적인 역할을 담당했기 때문이다.

임화가 그의 문학사에서 근대 문학을 시대정신을 재현하는 매개로서 적절한 자격을 가졌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문학은 다른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운 주체의 영역에 있어야 했다. 식민지 조선의 문학이 발표하는 순간부터 검열과 자본주의적 논리에 타협하여 산출된 산물이라는 전제 하에서는 문학의 시대정신을 설명하기가 복잡해진다. 임화는 이러한 식민지적 상황의 한계를 그의 문학사 서술에서 '신문'보다 '잡지'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해결해보고자 한다. 앞서 3장에서 언급한대로 그는 저널리즘에서 신문과 잡지를 구분하고, 잡지가 신문보다 더 심도 있는 기사들을 게재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임화가 문학사를 논한 글들에서 잡지, 특히 상업자본이 아닌 소수 문인들의 사비로 출간되었던 동인지인 『창조』와 『백조』[44]는 1920년대 초반 식민지 조선에서 자연주의를 탄생시키고, 이것이 변증법적 과정을 거쳐 낭만주의로, 또 신경향파 문학으로 발전하도록 도운 토대이기도 했다.

---

44) 특히 낭만주의에서 신경향파 소설로 이어지는 교두보 역할을 마련한 『백조』의 경우, 임화는 자신의 다른 문학사 저술들에서만이 아니라 「『백조』의 문학사적 의의: 일 전형기의 문학」, 『춘추』, 1942.11.에서 다시 한 번 따로 논할 만큼 조선의 근대 문학사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임화는 1900년대 후반부터 1920년대 전반기에 이르는 시기만을 두고 식민지 조선의 문학작품과 이들이 차용한 서구의 문예사조들의 발전양상을 살필 뿐, 그 이후에 관해서는 본격적으로 서술하지 않는다. 다만 그가 여러 글들에서 1933년과 1934년에 걸쳐 『조선일보』에 연재되었던 『고향』을 조선 근대 문학의 정수로 꼽는 것에서[45] 그의 문학사 서술의 방법론이 포괄하는 시기는 1930년대 전반기까지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1930년대 후반기와 그 이후의 문학사에도 그의 방법론이 적용될 수 있을까? 여기서 1930년대 후반기의 식민지 조선의 문학계를 분석하는 「통속소설론」의 논의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임화가 「통속소설론」에서 통속소설을 설명하는 방식은 임화가 1900년대부터 1920년대 중반까지의 문학사를 설명하는 방식과 조금 다르다. 임화는 이 시기의 소설 양식의 변천과정을 설명하면서 서구의 문예사조가 식민지 조선에서 어떻게 변증법적으로 발전해나가는지 조선 문학의 내적 발전과정을 중심으로 설명했지만, 「통속소설론」을 비롯하여 저널리즘과 문학의 관계를 논하는 글들은 통속소설이 나타나게 된 식민지 조선의 출판환경, 자본주의 발전에 따른 지면의 상업주의적 성장, 독자들의 증가, 그리고 이 요인들이 문학의 내용에 미치는 영향을 언급한다. 그는 신문학사론에서 저널리즘을 정신적인 요인으로 분석했지만, 통속소설 분석에서 저널리즘은 경제적 요인 및 사회적 요인의 일환으로 제시된다. 나아가 통속소설은 조선의 '근대' 문학이 '발전'해나가는 과정에서 변증법적 과정을 거쳐 등장하지도 않았으며, 서구의 문예사조로 설명될 수 있는 문학사조도 아니다.

임화의 '문학사'의 방법과 그동안 문학사를 서술해온 방식을 염두에 두면, 임화의 '통속소설론'은 오히려 당시 임화가 전개하던 문학사 프로젝트를 방해할 위험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화가 통속소설을 연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것이 당시 조선 문단에서 차지하는 위상 때문이었다. 임화도,

45) 임화는 이기영의 『고향』이 조선의 근대문학사에서 왜 가장 발전된 형태며 어떤 점에서 주목할 가치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분석하지는 않았으나 「조선 신문학사론 서설」에서도, 「소설문학의 20년」에서도 거듭 『고향』을 조선의 근대문학사의 정수를 보여준다고 언급했다.

한설야도 언급한대로, 통속소설과 통속소설이 아닌 소설들을 구별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이들이 '통속소설'로 분류한 역사소설, 혹은 대중의 상식을 벗어나지 않는 서사구조를 가진 소설은 1930년대 중반에 신문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가장 성행하는 소설류였다. 임화는『고향』이후의 조선 문학이 어떻게 발전해나가는지 연구하는 과정에서, 당시 식민지 조선 문단에 세력을 넓혀가던 통속소설을 마주해야했다. 그러나 식민지 조선의 문학사를 서구의 문예사조가 발달과정에 발맞추어 나아간다고 설명하는 그의 방법으로는 1930년대 중반 이후 통속소설이 성행하게 된 상황을 설명할 수 없었다. 이로 인해 그는 조선 근대 문학의 발전 과정의 초기에는 "정신적 준비"의 영역에 있던 저널리즘을 문학 창작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영역에 놓음으로서 변증법적 발전과정을 벗어난 현상을 설명하고자 한 것이다.

임화의 통속소설 분석은 역설적으로 1930년대 중반 이전의 문학사에 출판환경이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해야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유석환이 언급한대로 "문학체계들의 활성화를 추동했던 요인은 정치나 경제 어느 하나에만 국한될 수 없는 복합적 성격"[46]을 가지고 있었다. 1930년대 중반의 저널리즘에서 상업적 성격이 그렇게 강해졌다면, 그 이전에 상업적 성격은 어떤 방식으로 존재했고 이것이 소설에 미친 영향은 무엇인지 탐구해야한다. 또한 통속소설과 '예술소설'이 서로 어떤 영향을 주고받았는지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 임화가「통속소설론」에서 언급하듯이, 그가 '통속소설' 작가로 분류한 김말봉만이 아니라 '예술소설' 작가로 분류되는 이태준과 박태원 등도 그가 보기에 '통속소설'로 분류될만한 작품들을 썼다. 이 중 이태준에 대한 언급부터 살펴보자.

> 그러나 이태준씨의「화관」과 같은 소설의 통속성은 어떠한가? 이것은 아마 신문 지면상에서 예술파 작가가 통속작가와 가장 노골적으로 경쟁한 표본이다. 또한 아주 보기 좋게 패배당한 실례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예는 유독 이태준씨의「화관」에 그칠 뿐만 아니라, 현재 신문에 장편을 쓰는 대부분의 작가가 부

46) 유석환,「문학시장의 형성과 인쇄매체의 역할(2): 1925년 전후의 문학사의 국면」,『대동문화연구』제78호,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12, 279면.

득이 혹은 즐겨서 취하는 길(정도의 차는 있을지언정)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엔 물론 신문사가 작가에게 요구하는 독자에 대한 고려라는 괴로운 조건이 따르는 것이건만 그것과 별개로 현대 장편소설이 좀처럼 해서는 제 예술성을 상실치 않고 줄거리를 만들어 낼 수 없다는 근본조건이 잠재해 있다. 줄거리란 성격과 환경, 따로 말하면 묘사와 작가의 주장이 정상한 교섭을 할 때만 그야말로 예술적인 의미의 것이 생겨나는 것으로 이것은 현재에 있어 조선문학이 장편소설을 구성할 힘이 부족한 가장 큰 표현이다.

그러기 때문에 많은 예술파 작가가 장편을 쓸 땐 줄거리의 안출은 대부분 통속소설의 방법을 취하고 있다.[47]

임화는 이 시기의 다른 평론에서 현재 식민지 조선의 소설들이 '세태소설'이나 '심리소설'로 기우는 이유를 이 "성격과 환경"이 일치할 수 없는 시대적 상황의 제약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48] 그리고 그는 김말봉의 소설 등이 성격과 환경의 모순을 상식적 서사로 처리하였고, 이러한 김말봉의 방법은 다른 "예술파 작가"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했다. 실상 임화의 '통속소설' 개념이 모호하기 때문에 김말봉 소설의 성격을 정확하게 규정하기는 어렵지만, 문맥상 작가의 독자적인 예술세계보다 대중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상식적인 부분들을 더 부각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이태준 소설의 '통속소설'적인 측면은 이 김말봉과 같은 통속소설 작가들의 영향을 받아 갑자기 나타난 것일까? 그러나 이미 1930년대 초반부터 이태준의 장편소설이 단편소설과 비교했을 때 개성이 부족하므로 그의 독특한 예술적 성취가 장편소설 창작으로 인해 퇴색될 가능성에 우려를 표하는 논자들이 있었다.[49]

---

47) 임화, 「통속소설론」, 앞의 책, 2009c, 315-316면.

48) 같은 책, 309면.

49) 이태준을 '스타일리스트'라고 명명하며 그의 소설 기법에 찬사를 보낸 김기림은 이태준의 장편소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한 바 있다. "최근에 몇 곳의 부인잡지에 실린 그의 소설을 어떠한 사람은 "여학생 소설"이라고 명명하는 것을 들은 일이 있다. 그가 만약에 그의 개성을 버리고 묘사라든지 스토리라든지에 그런 방면의 낡은 습관에 붙잡힌다면 젊은 제너레이션이 이윽고 그에게서 발견하는 것은 실망뿐일 것이다." 김기림, 「작가가 본 작가(10)—스타일리스트 이태준 씨를 논함(2)」, 『조선일보』, 1933.6.27. 김기림은 이태준의 장편소설이 대중들과 상업주의에 영합하려고 한다면 오히려 젊은 세대들에게 호응을 이끌어낼 수 없으리라고 평가한다. 이 인용문에서 이태준의 '통속성'은 그가 장편소설을 창작하던 초창기부터 문인들 사이에서 논의거리가 되어왔음을 알 수 있다.

김기진은 신문연재 장편소설의 경우 독자들이 매일매일 소설의 일부만 읽고 그 일부에서 재미를 찾으려하기 때문에, 소설들이 대부분 사건의 시작, 전개, 결말이 뚜렷한 구성을 공유할 수밖에 없다고 논했다. 그는 신문이라는 미디어의 속성으로 인해 주로 신문에 연재되었던 장편소설들은 작가의 개성을 전면화할 수 없었다고 지적한다.[50] 김기진의 논설과 이태준의 사례를 보면, 임화의 논지가 시작하는 지점에 문제가 있음이 드러난다. 임화는 조선의 근대문학 역사를 통틀어서 식민지 조선의 작가들의 역량이, 그리고 그들이 장편 소설을 발표할 지면이 그들의 개성을 전면에 내세우기에 충분했는지부터 질문해야 했다.

임화의 문학사 논의에는 1930년대 중반 이전에 소설의 출판시장에 영향을 미친 경제, 사회, 정치적인 토대들이 구체적으로 분석되어있지 않지만, 1930년대 중반을 조선 소설사의 분기점으로 인식하는 그의 가정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이 토대의 분석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이 분석은 문학, 특히 신문에 연재된 장편소설의 서사구조가 저널리즘의 상업적인 성격과 어떤 타협 및 배반을 거쳐 만들어졌는지 밝히는 기초가 될 것이다. 특히 이 '상업적인 성격'은 단순히 대중의 취향에 영합하는 것을 넘어서서 검열에 걸리지 않고 출판물을 간행하는 것도 포함한다.[51] 이런 점에서, '상업성'은 자본주의와 대중추수주의만이 아니라 식민주의와도 교차한다고 볼 수 있다. 서구 문학의 '사조'와 이 '사조'에 맞춰 창작된 소설 안에 내재된 '시대정신'의 규명에 초점을 맞춘 임화의 문학사는 역설적으로 식민지 조선의 문학사를 서술하기 위해서는 문학을 둘러싼 식민주의와 자본주의를 분석해야할 필요성을 불러일으킨다.

---

50) 김팔봉, 「신문 장편소설 시감」, 『삼천리』, 1934.5., 223면.

51) 식민지 조선의 신문사들은 1920년대 후반부터 각 신문사의 정치적 논조나 총독부에 저항적인 목소리를 내기보다는 점차 총독부의 검열에 순응하고 최대한 검열에 걸리지 않을만한 기사들을 싣기 시작했다. 선행연구들과 당시 신문사에서 편집 책임자 등으로 일했던 이들의 회고는 이 까닭을 1920년대 후반기부터 광고 등 신문의 성격에 상업성이 강해지면서, 검열로 인해 압수 혹은 발매금지를 당했을 때 신문사가 입는 경제적 타격이 심각했기 때문이라고 서술한다. 이를 통해 검열을 최대한 우회하여 신문기사를 구성하려는 노력도 당시 저널리즘의 상업주의와 무관하지 않다고 해석할 수 있다. 박용규, 「식민지 시기 문인기자들의 글쓰기와 검열」, 『한국문학연구』 제29집, 동국대 한국문학연구소, 2005, 13-16면.

5. 결론

이 논문은 임화의 '통속소설'에 대한 견해가 시대적 맥락과 문단의 분위기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1929년과 1938년에 각각 발표된 그의 평론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식민지 조선의 문인들, 특히 카프에 소속되었거나 그 주변에 있던 문인들의 '통속소설'에 관한 견해는 1920년대 후반에는 '통속소설' 그 자체를 비판하던 것에서 1930년대 후반에 이르면 이것의 정체가 무엇인지 탐구하고 그것이 당대에 어떤 위상을 차지하는지 분석하는 것으로 변한다. 이러한 논의의 흐름 속에서 임화는 누구보다도 '통속소설'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했다. 이 논문은 '통속소설'에 대한 임화의 시각을 그의 문학사 서술 작업, 그리고 당대 사회와 문단의 맥락에서 분석하여, 이것이 식민지 조선의 문학사 서술에 시사하는 점을 살펴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 우선 임화가 1929년과 1930년 사이에 김기진과 논쟁하며 제시했던 프롤레타리아 문학 대중화에 대한 그의 견해를 살펴보았다. 그는 프롤레타리아 소설을 대중들에게 더 많이 보급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중들의 기호에 맞는 작품을 창작하고 검열을 피할 수 있을 정도로 정치적 급진성을 약화시켜야한다는 김기진의 주장을 노골적으로 비판했지만, 이는 상당부분 원칙론의 수준에 그쳐 있으므로 김기진이 제시한 주장들을 논리적으로 비판했다고 보기 어렵다. 결과적으로 김기진이 당시 문단 상황과 문학이 놓여있는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조건을 분석하는 방법론은 임화가 1938년에 식민지 조선에서 문학을 게재하는 매체와 당시 유행하던 통속소설을 분석하는 방법론으로 이어진다. 통속소설에 비판적이던 임화가 통속소설 분석에 집중하게 된 배경에는 그가 1935년부터 시작했던 문학사 저술 작업과 관련이 있다. 그는 조선의 근대 문학이 발전하게 된 배경을 "물질적 배경"과 "정신적 준비"로 나누고, 이 조건 안에서 조선의 근대 소설이 서구 문예사조를 받아들이면서 변증법적으로 발전해나가는 과정을 분석한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론으로는 1930년대 중후반 통속소설이 성장하는 원인을 규명할 수 없었다. 따라서 그는 문학사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전, 통속소설을 낳은 중요한 조건으로 저

널리즘의 상업주의와 총독부의 검열을 언급한다.

임화가 통속소설을 분석하면서 제시한 소설이 게재되는 매체의 속성은 식민지 조선의 문학사를 서술할 때 고려해야할 측면을 시사한다. 한국의 문학, 특히 식민지시기의 한국의 문학은 서구의 다양한 문예사조를 수용하면서 근대 문학의 시발점이라고 볼 만한 요인들이 많이 등장한 시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문학에 나타난 근대적 상상력들이 자본주의와 식민주의에 의해 제약당하던 시기이기도 했다. 임화의 통속소설론과 관련된 논의들은 그가 문학사를 서술하는 방법과는 다르지만, 오히려 그 다름으로 인해 식민지 조선의 문학사 서술은 정신적인 '근대성'과 문학의 장르가 발전하는 요인만이 아니라 문학창작을 둘러싼 구체적인 물질적 조건들 역시 고려해야한다는 것을 드러낸다. 이것은 오늘날의 식민지시기 한국문학사 서술에서도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다.

▮ 참고문헌

『동아일보』, 『삼천리』, 『예술운동』, 『이입수입 불온간행물 개황』, 『조선일보』, 『조선출판경찰월보』.

김기진, 홍정선 편, 『김팔봉 문학전집: Ⅰ. 이론과 비평』, 문학과지성사, 1988.
임규찬・한기형 편, 『카프시대에 대한 회고와 문학사』, 태학사, 1989.
임 화, 임화문학예술전집 편찬위원회 편, 『임화문학예술전집』 1-5, 소명출판, 2009a-e.

강용훈, 「'통속' 개념의 변천 양상에 대한 역사적 고찰」, 『대동문화연구』 제85호,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소, 2014, 9-48면.
권영민, 『한국 계급문학 운동사』, 문예출판사, 1998.
김영민, 『한국문학비평논쟁사』, 한길사, 1992.
문학과 사상 연구회, 『임화문학의 재인식』, 소명출판, 2004.
박경수, 「일제하 재일 문학인 김두용의 반제국주의 문학운동 연구: 제3전선사에서 코프(KOPF)의 해체까지」, 『우리문학연구』 제25호, 우리문학회, 2008, 283-325면.
박용규, 「식민지 시기 문인기자들의 글쓰기와 검열」, 『한국문학연구』 제29집, 동국대 한국문학연구소, 2005, 79-120면.
배상미, 「가부장적 억압과 혁명성의 경계에 선 여성들: 『카프 시인집』 수록 시편들의 여성 청자와 화자」, 『한국학연구』 제50호, 인하대 한국학연구소, 2018, 31-65면.
_____, 「1930년대 초반 프롤레타리아 소설의 계급의식과 여성 동성사회성」, 『현대문학의 연구』 제67호, 현대문학연구학회, 2019, 7-45면.
스가이 유키오, 박세연 역, 『쓰키지소극장의 탄생: 한・일 근대연극의 요람』, 현대미학사, 2005.
유석환, 「문학시장의 형성과 인쇄매체의 역할(2): 1925년 전후의 문학사의 국면」, 『대동문화연구』 제78호,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12, 261-288면.
이주라, 『식민지 근대의 시작과 대중문학의 전개』, 소명출판, 2016.
전희선, 「베스트셀러로서의 『카프시인집』 의미 연구」, 『한중인문학회』 제61호, 한중인문학연구, 2018, 29-52면.
천정환, 『근대의 책읽기』(2판), 푸른역사, 2014.
한기형, 「식민지 검열정책과 사회주의 관련 잡지의 정치 역학—개벽과 조선지광의 역사적 위상 분석과 관련하여」, 『한국문학연구』 제30호, 동국대 한국문학연구소, 2006, 171-202면.
_____, 「"법역(法域)"과 "문역(文域)": 제국 내부의 표현력 차이와 출판시장」, 『민족문학사연구』 제44호, 민족문학사학회, 2010, 309-339면.
한만수, 「문학이 자본을 만났을 때 한국 문인들은?: 1930년대 문예면 증면과 문필가협회 결성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연구』 제43호, 동국대 한국문학연구소, 2012, 261-293면.

【Abstract】

The Relationship between Secular Novels and Korean Modern Literary History in Im Hwa's Theory

Bae, Sangmi*

This paper examines the theory of secular novel by Im Hwa between 1929 and 1938. Im criticizes Kim Kijin, who argues that the proletarian literature should debilitate the level of socialist agitation in the literature for both circumventing censorship and spreading their literature to mass, during the debate about popularizing proletarian literature in the late 1920s. However, Im repeated Kim's methodology when analyzing secular novels and the media for literature. His logic for explaining secular literature is different from the Korean modern literary history project focusing on how the Korean modern literary genre has developed dialectically following European order. This discrepancy suggests that literary history should consider colonialism and capitalism, which influence on publications and narratives.

Keywords: Im Hwa, Secular novel, Journalism, Literary history, Popularizing proletarian literature, Kim Kijin, Capitalism, Colonialism.

접수일: 2020.03.31. ‖ 심사일: 2020.04.10. ‖ 게재확정일: 2020.05.18.

* Guest Researcher, Center for Korean Studies, University of Tübingen.